



지표로 보는 이슈

제77호 | 2016년 12월 22일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임성호
www.nars.go.kr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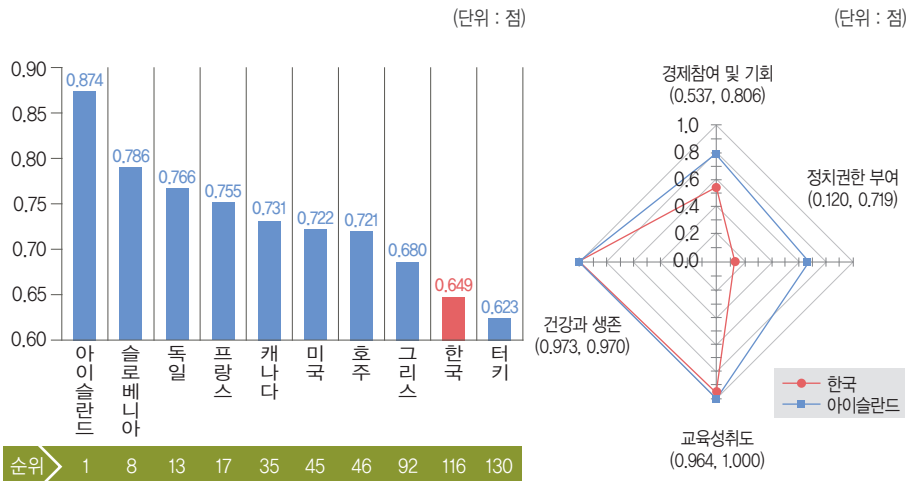
- 성별격차지수(GG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군에 속하며, 성불평등지수(GII)에 따르면, 비교대상 155개국 중 23위로 비교적 높아 중·상위권에 속함
- 2개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상대적 낮음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남
- 향후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선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

성별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2016년 기준



주: 1)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남녀 간 격차(gender gap)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성의 지위를 1로 놓고, 그것에 대한 여성의 지위를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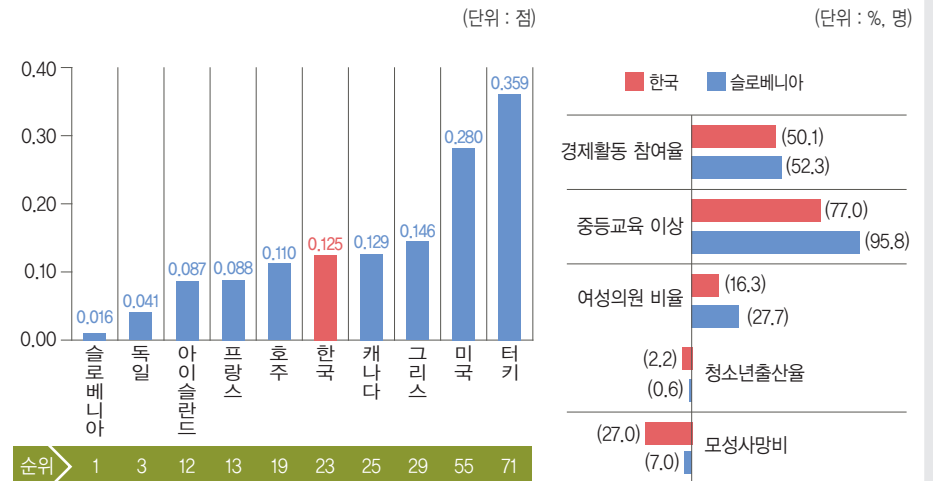
2) 비교 대상 국가는 144개국으로 1점은 완전 평등, 0점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2016.

- 성별격차지수(G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비교대상 국가 144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0.874)는 남녀 간 격차가 가장 없는 국가로 1위를 차지함
 - 한국(0.649)은 남녀 간 격차가 매우 커서 116위를 차지함
- 성별격차지수(GGI)는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부여의 4개 부문과 14개의 세부 측정지표들을 통해 산출됨
 - '경제참여 및 기회'는 ①남성대비 여성노동력 참여비율(91위, 0.731), ②유사업무의 남녀임금(125위, 0.524), ③추정소득(120위, 0.450), ④남성대비 여성입법부의원, 고위공무원, 관리자 비율(114위, 0.117) ⑤전문직 비율(78위, 0.928)로 측정되는데, 이 부문에서 한국은 123위(0.537)로 남녀 간 격차가 가장 벌어져 있음
 - 이는 교육(102위, 0.964점), 건강(76위, 0.973점), 정치(92위, 0.120점) 부문에 비해 순위가 낮은 편임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2015년 기준



주: 1)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남성대비 여성 인적자원의 손실을 측정함

2) 비교 대상 국가는 155개국으로 0은 완전성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함

3) 경제활동참여율, 중등교육이상과 여성의원의 비율은 높을수록, 반면 청소년출산율과 모성사망비는 낮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아짐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Work for Human Developmen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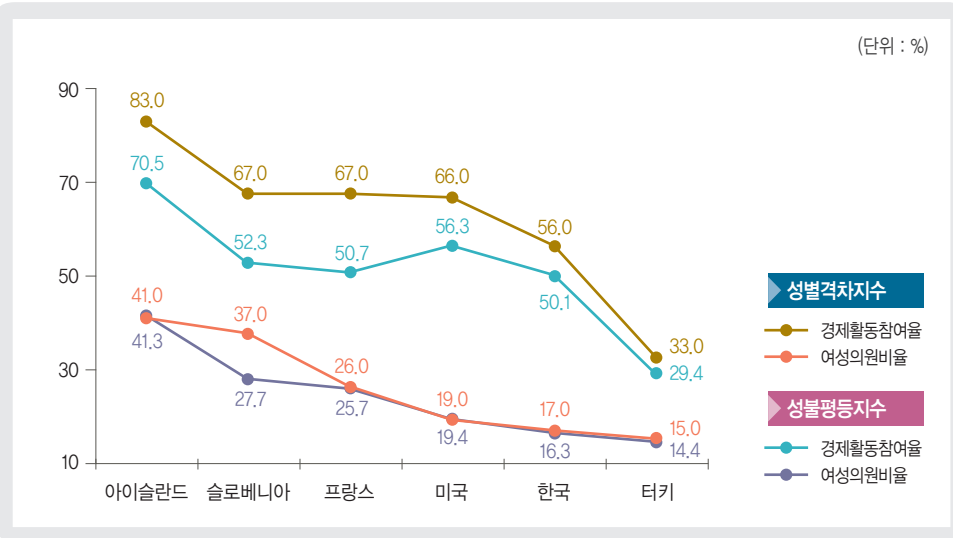
- 성불평등지수(GI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비교대상국가 155개국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0.016)는 전반적으로 남성대비 여성이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국가로 1위를 차지함. 슬로베니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52.3%)은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임
 - 한국(0.125)은 여성 인적자원의 손실이 비교적 적은 국가로 23위를 차지함
- 성불평등지수(GII)는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참여, 여성권한, 생식건강의 3개 부문과 5개의 하위 세부지표들(경제활동참여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여성의원 비율, 청소년출산율, 모성사망비) 간 연관성을 통해 산출됨
 - 한국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생식건강 부문에서 청소년출산율(1천명 중 2.2명)과 모성사망비(10만명 중 27.0명)가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낮기 때문임
 - 노동참여와 여성권한 부문의 하위 세부지표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의원 비율은 약간 낮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은 보존(청소년출산율과 모성사망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성별격차지수와 성불평등지수 측정 지표

2015년, 2016년 기준

시사점

-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성평등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WEF,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그 측정부문과 하위 세부 지표들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2개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상대적 낮음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2016.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Work for Human Development」, 2015.

- 실제로 성별격차지수와 성불평등지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의원의 비율은 모두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각각 1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56.0%),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50.1%)이고, 국제성평등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아이슬란드와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은 기준시점에 따라 각각 17.0%, 16.3%로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의원비율에서 성별 격차가 크고, 여성 고급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평등 수준이 제고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함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의 고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여성 국회의원 30%는 사회문화적 또는 제도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계지수(critical mass)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관련 통계 사이트 세계경제포럼(<https://www.weforum.org>), 유엔개발계획(<http://hdr.undp.org>)



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383-563X